

보도시점 2025. 4. 25.(금) 10:00  
(2025. 4. 25.(금) 석간)

배포 2025. 4. 24.(목) 16:00

# 과학기술인재·유공자·여성과학기술인을 아우르는 2025년 과학기술인재 정책 발표

- 제21회 미래인재특위 개최, 6개 안건 심의·의결
  - ▶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 2025년도 시행계획(안)
  - ▶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22~’26)」 2025년도 시행계획(안)
  - ▶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4~’28)」 2025년도 시행계획(안)
  - ▶ 2024년도 이공계 유학생 국내외 체류 현황 조사 결과(안)
  - ▶ 2023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결과(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25일(금) 제21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이하 ‘미래인재특위’)를 개최하였다.

미래인재특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특별위원회(위원장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중 하나로 국가 과학기술 인재정책에 대한 사전 검토, 심의 등을 수행하는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인재특위 신규 민간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국가 과학기술 인재정책의 심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들은 우수한 과학기술인재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과학기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미래인재특위에서는 ▲「제4차 과기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 2025년도 시행계획(안), ▲2024년도 이공계 유학생 국내외 체류 현황 조사 결과(안),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22~’26)」 2025년도 시행계획(안),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4~’28)」 2025년도 시행계획(안), ▲2023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결과(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 2025년도 시행계획(안)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과학기술인재 최상위 계획으로, 국가차원에서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이상(비전)과 목표를 담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관계부처의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추진전략 : ①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 ② 청년 연구자가 핵심인재로 성장하는 환경 조성, ③ 과학기술인의 지속 활약기반 확충, ④ 인재생태계 개방성·역동성 강화

정부는 2025년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을 위해 337개 세부과제, 총 9조 2,8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4대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전략 1: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 >

디지털 기반 탐구·활동을 위한 수학 교육 확대, 미래 과학인재로의 성장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 체험·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영재학교, 과학고를 중심으로 인공지능분야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며,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와 핵심 과학자군 양성을 위한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을 지원한다.

- ▶ 수학 공학도구(알지오매스, 알지오매스키즈) 활용 수업 활성화를 위한 안내서(매뉴얼) 개선 생활과학교실 운영 수혜자 수 : (’25) 152,469명(35억원)
- ▶ 영재학교·과학고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과정 운영 학교 수 : (’24) 10개교 → (’25) 14개교
- ▶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인재 양성 규모 : (’25) 13,780명(1,152억 원)
- ▶ 우수학생 이공계 장학금 : (’24) 507억 원 → (’25) 573억 원

## < 전략 2: 청년 연구자가 핵심인재로 성장하는 환경 조성 >

박사과정생의 연구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부문을 신규 추진하며,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역량 함양 및 연구자의 성장사다리 조성을 위해 개인기초 연구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차세대반도체, 이차전지, 양자, 우주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생명과학(바이오)·디스플레이·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 석·박사 연구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 ▶ 연구장려금 지원 학생 수 : ('24) 1,122명(163억 원) → ('25) 2,281명(381억 원)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선발 인원수 : ('25) 50명(학사 25명, 석사 25명)
- ▶ 개인기초연구 투자 : ('24) 1조 6,982억원 → ('25) 1조 9,053억원
- ▶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사업 연구개발 인력 양성 수 : ('25) 776명(599억 원)  
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 인원(석·박사 졸업자) 수 : ('25) 1,485명(1,494억원)  
인공지능 반도체고급인재양성 : ('25) 3개 대학원(90억 원)

## < 전략 3: 과학기술인의 지속 활약 기반 확충 >

자기주도학습 소프트웨어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42서울, 42경산)를 운영하고 민간·기업·우수대학을 통한 첨단산업·디지털 분야의 핵심 실무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연구자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및 가족친화 인증 기업·기관 확대 등 유연근무 지원도 강화한다.

- ▶ 한국형 디지털 연수(K-Digital Training) : ('24) 37,566명(4,755억 원) → ('25) 45,125명(4,781억 원)
- ▶ 여성과학기술인 대체인력 지원 확대(과기정통부) : ('24) 232명 → ('25) 331명
- ▶ 가족친화 인증 기업·기관 수 : ('24) 6,502개 → ('25) 6,900개

## < 전략 4: 과학기술인의 지속 활약기반 확충 >

해외 우수연구자의 전략적 유치에 위한 '기관유치형'을 신규 도입하고 국내 유치·정착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해외파견,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등 협력 관계망(네트워크)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세방화(글로벌)대학도 신규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 해외우수과학자(BP/ BP+) 유치 : ('24) 개인 119명(318억 원) → ('25) 개인 149명, 기관유치형 8개 (388억 원)
- ▶ 우수 외국인 연구자 동반 배우자의 체류자격 외 취업활동 허가 범위 확대('25. 상반기)
- ▶ 우수연구자교류지원 : ('25) 50명(86억원) / 혁신성장 국제 인재양성사업 : ('25) 107명(86억원)/ 디지털분야 국제 인재 양성 : ('25) 99명(90억원)
- ▶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지원(1조 7,047억원) / 세방화(글로벌)대학 지정 : ('25) 10개 이내 신규 지정

## ② 2024년도 이공계 유학생 국내외 체류 현황 조사 결과(안)

2024년도 이공계\* 유학생 국내·외 체류 현황 조사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조사로, 특히 이번 결과는 지난 '23년 12월에 발표한 ‘이공계 인력 국내외 유출입 조사 개선 추진계획(안)’에 따라 조사\*\*하여 발표하는 첫 결과이다.

\* 자연계열, 공학계열

\*\* 170여 개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 한국인 유학생의 전공 계열 정보 직접 수집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은 29,187명으로, 대학 과정이 20,186명, 대학원 과정이 9,001명이었다. 출신국가별로는 베트남이 25.1%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이 24.5%, 우즈베키스탄이 9.7%으로 뒤를 이었다.

※ 학위과정별·출신국가별 비중(상위 3개국)

(대학 과정) 베트남(30.7%) > 중국(23.7%) > 우즈베키스탄(12.2%)

(대학원 과정) 중국(26.4%) > 베트남(12.5%) > 파키스탄(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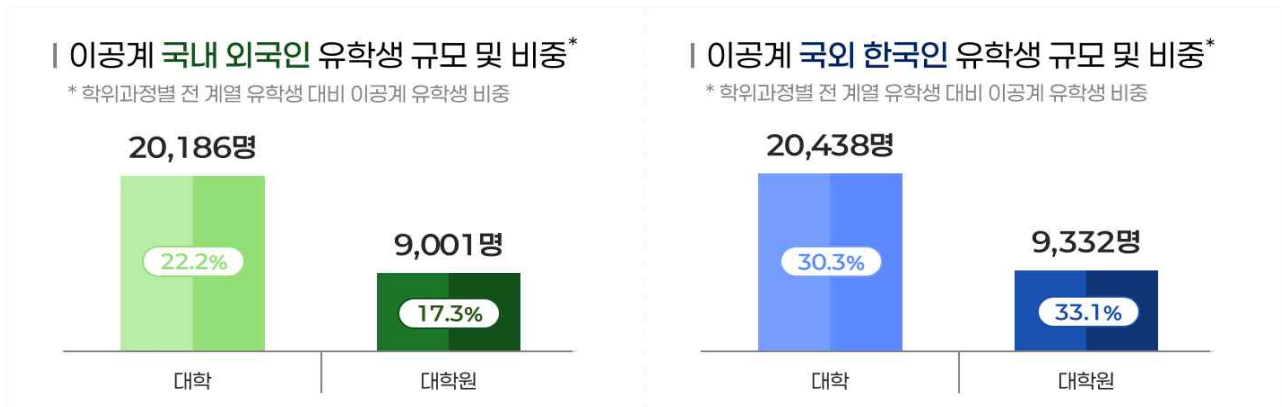
2024년도 기준 국외에 체류 중인 이공계 한국인 유학생은 29,770명으로, 대학 과정이 20,438명, 대학원 과정이 9,332명이었다. 체류국가별로는 미국이 44.9%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이 13.9%, 캐나다가 11.8%로 뒤를 이었다.

※ 학위과정별·체류국가별 비중(상위 3개국)

(대학 과정) 미국(36.5%) > 캐나다(16.5%) > 일본(15.9%)

(대학원 과정) 미국(63.3%) > 독일(9.5%) > 일본(9.5%)

### '24년도 이공계 국내·외 유학생 현황



### ③ 2025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 시행 계획(안)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기술유공자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22~’ 26)의 2025년도 시행계획으로, 2024년도 추진 성과와 2025년도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유공자법(2015년)』 제정 이후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 총 91명의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고, 국민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널리 알림으로써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힘써 왔다.

\* '17년 32명, '18년 16명, '19년 12명, '20년 9명, '21년 8명, '22년 4명, '23년 4명, '24년 6명

2024년에는 6명의 유공자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작고하신 유공자(고(故) 김재관, 고(故) 박상대 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지원, 과학기술유공자 증서 수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유공자 거주 또는 집무 공간에 유공자 명패 헌정, 유공자 업적 교육만화를 발간하여 과학관에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공자를 예우하였다.

올해는 유공자 예우를 위한 기존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유공자의 업적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국립과학관 및 지자체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립과학관을 통해 미래 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추진하고, 유공자 연고지 지자체와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유공자 후보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성과가 탁월하고 현직에서 활동 중인 과학기술인을 적극 발굴하고, 산업계·연구계·과학사 전문가의 발굴위원회 및 분야별 심사위원회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 ④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4~’28) 2025년도 시행계획(안)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은 작년에 마련한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4~’ 28) 비전인 ‘여성과학기술인과 함께 열어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 구현을 위한 4대 전략\*에 대한 2025년도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 1.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여성인재 조기발굴 및 유입 촉진, 2. 여성과학기술인 지속활약 기반 확충, 3. 유망기술 분야 여성인재 참여 및 국제협력 강화, 4. 포용적 문화확산 및 사회적 기여 확대

정부는 2025년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등을 위해 1,43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과학기술분야의 우수한 여성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현장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과제 해결(프로젝트형) 활동을 강화하고, 이공계 진학 및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탐구중심 수학·과학 교육 자료(콘텐츠) 개발, 산학연 재직자의 진로 특강, 대학 등 연구현장의 전공/직무 체험을 추진한다.

또한,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 지식재산, 생명과학 등 신산업 분야 취업 역량 교육을 지원하고 육아기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 연구문화 확산을 위해 연구활동 중 자녀의 긴급 돌봄 수요가 발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지역 핵심산업과 우수한 여성인재간 연계를 위해 지역테크노파크와 연계하여 권역별 거점(허브, R-Station)을 구축하고 전력분야별 교육, 지도(멘토링) 및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지원을 강화하며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술교육, 자문 등 창업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여성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 ⑤ 2023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결과(안)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는 이공계 대학, 공공 연구기관 및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근무 상황, 교육, 연구개발, 복지, 근무환경 등을 매년 조사한다.

총 4,98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23년도 재직여성 규모는 전년 대비 1,670명 증가한 61,430명으로, 비율은 전년 대비 0.4%p 증가한 23.1%로 조사됐다. 신규채용은 전년 대비 120명 감소한 6,628명으로 비율은 전년 대비 0.5%p 감소한 31.6%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보직자 비율은 12.8%(4,752명), 승진자 비율은 18.8%(1,572명)로 조사됐다.

\* 이공계 대학 272개, 공공연구기관 225개, 민간기업 연구기관 4,484개 전수조사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중 법적 의무제도\*의 운영률은 93.1%인 반면, 자율적 제도\*\*의 운영률은 55.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휴가제도(출산전후, 태아검진, 유사산, 육아, 배우자출산) 수유시간보장 등 6개

\*\* 휴직(난임, 일반), 수유시설, 대체인력, 유연·원격·재택근무제, 휴게실 등 8개

이공계 여성 입학생 비율은 32.2%, 재학생 비율 31.9%(자연 52.5%, 공학 23.7%), 여학생의 졸업 직후 취업률은 65.9%(남학생 71.4%)로 분석되었다.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재직목표제 추진실적 조사는 여성인재의 과학기술 분야 진출 촉진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2023년도는 신규채용 비율 19.7%, 재직 비율 17.1%로 조사되었다.

\* 정부출연 연구기관 42개, 공사부설 연구기관 8개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이 그 나라의 경제·외교·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기술패권시대를 맞아, 우수한 인재를 누가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라며, “정부는 오늘 심의·의결한 정책들을 잘 추진함과 동시에, 올해 수립 중인 「제5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우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큰 그림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 붙임 : 1. 제21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개최 계획(안) 1부.  
2. 제21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상정 안건 요약 1부.

|       |                       |     |     |                    |
|-------|-----------------------|-----|-----|--------------------|
| 담당 부서 | 과학기술혁신본부<br>과학기술혁신기반팀 | 책임자 | 팀 장 | 이승윤 (044-202-6760) |
|       |                       | 담당자 | 사무관 | 장남섭 (044-202-6762) |
| <2호>  | 과학기술혁신본부<br>과학기술혁신기반팀 | 책임자 | 팀 장 | 이승윤 (044-202-6760) |
|       |                       | 담당자 | 사무관 | 장남섭 (044-202-6762) |
| <3호>  | 과학기술혁신본부<br>과학기술혁신기반팀 | 책임자 | 팀 장 | 이승윤 (044-202-6760) |
|       |                       | 담당자 | 사무관 | 지현진 (044-202-6751) |
| <4호>  | 미래인재정책국<br>미래인재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김영은 (044-202-4820) |
|       |                       | 담당자 | 사무관 | 문종훈 (044-202-4844) |
| <5호>  | 미래인재정책국<br>과학기술문화과    | 책임자 | 과 장 | 이제준 (044-202-4840) |
|       |                       | 담당자 | 사무관 | 양재혁 (044-202-4841) |
| <6호>  | 미래인재정책국<br>과학기술문화과    | 책임자 | 과 장 | 이제준 (044-202-4840) |
|       |                       | 담당자 | 사무관 | 양재혁 (044-202-4841) |



# 붙임 1 제21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개최 계획(안)

## □ 개요

- (일시/장소) '25. 4. 25.(금) 10:00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서울)
- (참석대상) 위원장(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및 정부위원\*, 민간위원 등 총 25명

\* 과기정통부(2), 교육부(1), 산업부(1), 고용부(1), 중기부(1) 실장급 공무원

## □ 상정안건

| 연번        | 안건  | 담당부서                 |
|-----------|---|----------------------|
| 1<br>(심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 과기정통부<br>(과학기술혁신기반팀) |
| 2<br>(심의) | 제4차 과기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안)            | 과기정통부<br>(과학기술혁신기반팀) |
| 3<br>(심의) | 이공계 유학생 국내외 체류 현황 조사 결과(안)                    | 과기정통부<br>(과학기술혁신기반팀) |
| 4<br>(보고) |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22~'26) 2025년도 시행계획(안) | 과기정통부<br>(미래인재정책과)   |
| 5<br>(보고) |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4~'28) 2025년도 시행계획   | 과기정통부<br>(과학기술문화과)   |
| 6<br>(보고) | 2023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결과(안)                 | 과기정통부<br>(과학기술문화과)   |

① 「제4차 과기인재 육성·자원 기본계획('21~'25)」 2025년도 시행계획(안)

□ 추진배경

- 제4차 과기인재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공계지원특별법 제5조에 따라 '24년도 실적을 점검하고 '25년도 시행계획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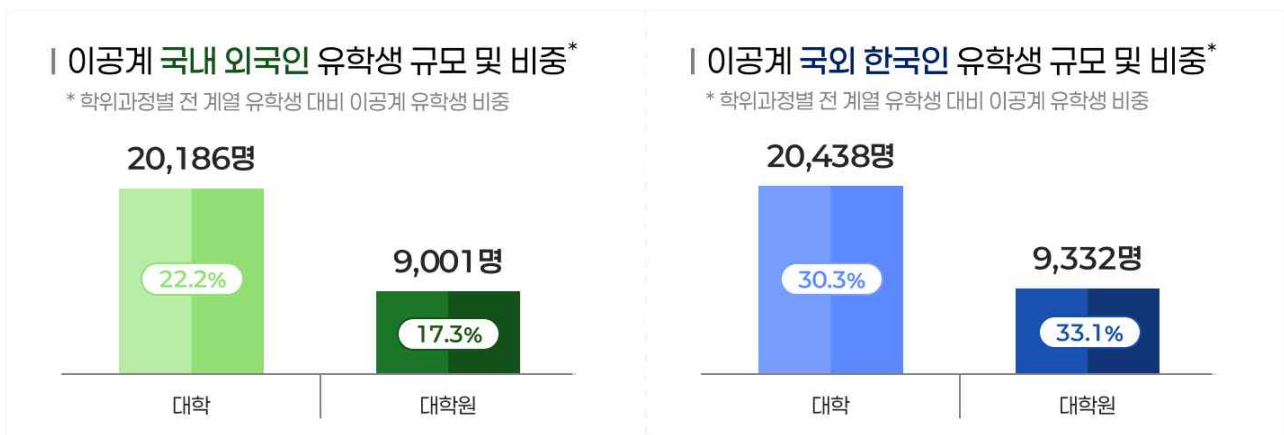
□ 주요내용

- (예산) '25년 337과제, 총 9조 2,825억원 투자
  - ※ '24년 총 7조 4,005억원 대비 1조 8,820억원 증가(RISE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24년 3,535억원에서 '25년 1조 7,047억원으로 시행계획에 새롭게 추가)
- ('24년 추진성과) 17개 부처 및 17개 지자체에서 334개 세부과제 추진
  - (전략1) 국가우수장학금 지원, 신기술 SW전문인력 양성지원
  - (전략2)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트랙 도입
  - (전략3) 경력복귀 연구과제 및 대체인력 지원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금 신설('24.7)
  - (전략4)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인재정책 고도화 전략'('24.6) 수립
- ('25년 추진계획) 19개 부처 및 17개 지자체에서 337개 세부과제 추진
  - (전략1)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양성 강화 및 핵심 과학자군 양성을 위한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지원
  - (전략2) 박사과정생 학위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및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트랙 선발 추진하고, 개인기초 연구지원 확대
  - (전략3) 연구자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및 가족친화 인증 기업·기관 확대 등 유연근무 지원 강화
  - (전략4) 해외 우수연구자 전략적 유치를 위한 '기관유치형' 신규 도입 및 지자체 주도의 RISE 본격 추진

## ② 2024년도 이공계 유학생 국내외 체류 현황 조사 결과(안)

- **[배경]** 글로벌 우수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공계 인력의 국내·외 체류 현황 파악을 통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 필요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공계 유학생에 대한 체류 현황 조사 실시
- **[추진경과]** 「이공계 인력 국내외 유출입 조사」 개선 추진 계획(안)\*을 통해 조사·분석 체계 개선 계획 마련('23.12, 미래인재특위 보고)
  - \* 동 계획에 따라 유학생은 매년, 취업자는 3년 주기('25년 조사 범위에 해당)로 조사
  - (국내 외국인 유학생)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를 활용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세분화된 전공 정보 등을 파악
  - (국외 한국인 유학생) 추정\*이 아닌 과기정통부-교육부 협조를 통해 170여 개국 재외공관으로부터 유학생 전공 정보 직접 수집
    - \* 기존 추정 방식: 미국립과학재단(NSF)이 발표한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의 이공계 비중(약 30%)을 전 세계 한국인 유학생에 적용하여 전 세계 이공계 한국인 유학생 현황을 추정
- **[주요내용]** '24년도 이공계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9,187명이며, 이공계 국외 한국인 유학생은 29,770명

### '24년 이공계 국내·외 유학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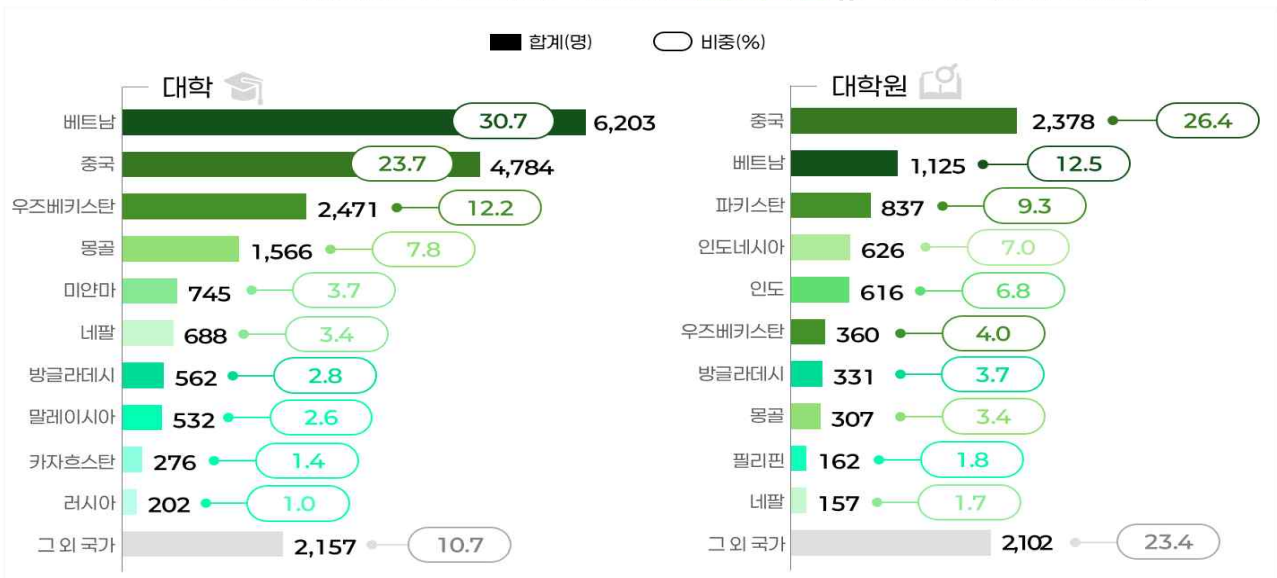
○ (국내 외국인 유학생) 출신국가별로는 베트남(25.1%)이 가장 많았으며, 중국(24.5%), 우즈베키스탄(9.7%) 순

※ 학위과정별·출신국가별 비중(상위 3개국)

(대학 과정) 베트남(30.7%) > 중국(23.7%) > 우즈베키스탄(12.2%)

(대학원 과정) 중국(26.4%) > 베트남(12.5%) > 파키스탄(9.3%)

'24년 학위과정별·출신국가별 이공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상위 10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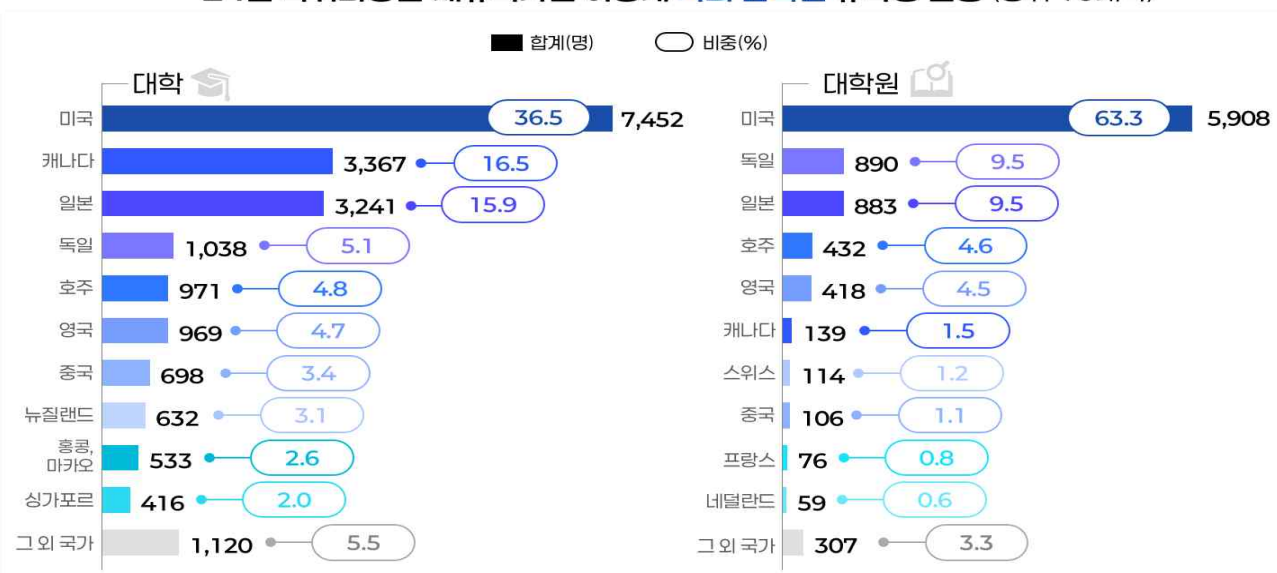
○ (국외 한국인 유학생) 체류국가별로는 미국(44.9%)이 가장 많았으며, 일본(13.9%), 캐나다(11.8%) 순

※ 학위과정별·체류국가별 비중(상위 3개국)

(대학 과정) 미국(36.5%) > 캐나다(16.5%) > 일본(15.9%)

(대학원 과정) 미국(63.3%) > 독일(9.5%) > 일본(9.5%)

'24년 학위과정별·체류국가별 이공계 국외 한국인 유학생 현황 (상위 10개국)



### ③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22~'26)」 2025년도 시행계획(안)

#### □ 추진 배경

-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22~'26)」의 '25년도 시행계획 수립·발표

#### □ '24년도 주요 추진실적

- (지정) '24년 유공자 6명 지정\*, (예우) 국립묘지 안장(故 김재관, 故 박상대), (활동 지원) 강연, 교류회 등(11회), (업적 홍보) 교육만화 제작·배포(1,000부)
- \* 총 91명('17년 32명, '18년 16명, '19년 12명, '20년 9명, '21년 8명, '22년 4명, '23년 4명, '24년 6명)

#### □ '25년도 추진계획

- (유공자 지정) 전문가 의견수렴('24.5, '25.1)을 통해 도출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25년 유공자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유공자 지정절차 추진

##### <지정절차 주요 개선사항>

| 전문가 의견(AS-IS)             | 개선(TO-BE)                                   |
|---------------------------|---|
| 은퇴자·작고자 위주 후보 발굴 및 유공자 지정 | 연구성과가 탁월하고 현직에서 활동 중인 과학기술인 적극 발굴           |
| 학계 중심 전문가 참여 및 유공자 지정     | 발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심사위원회에 산업계, 연구계, 젊은 연구자 참여 확대 |
| 체계적 발굴 시스템 필요             | 과학사 전문가 참여 확대, 발굴 후보군 DB화                   |

※ (일정) 후보 공모·발굴(~6월) → 분야별 심사(8~10월) → 최종심사(11월) → 유공자 지정(12월)

- (유공자 예우) 유공자 증서 수여('24년 지정 6명)를 위한 유공자 헌정식을 개최하고, 유공자 거주·집무공간에 명패 부착\* 지속 추진
- \* '24년 지정 유공자(6명), 표준연 창립 50주년 기념 故김재관 유공자 등 총 11명
- (사회활동 지원) 강연, 저술, 정책 제안, 교류간담회, 후속세대 멘토링 등 유공자의 사회활동 지원
- (업적 홍보) 교육만화, 유튜브 영상, 카드뉴스 등 콘텐츠를 제작·활용하고, 국립과학관\* 및 지자체\*\*와 연계·협력을 통한 홍보 강화
- \* 5개 과학관과 연계한 지역 어린이·청소년 대상 강연, 교육만화 배포 등 홍보 추진
- \*\* 경기 화성 故김재관 헌정사업, 충남 예산 故이태규 선양사업, 부산 故장기려 기념사업 등

## ④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4~'28) '25년도 시행계획(안)

- (배경) 「여성과학기술인법」 제4조에 따라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4~'28)」 수립('24.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제5차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여성과학기술인법(제5조)에 따라 '24년도 실적을 점검하고 '25년도 시행계획을 수립

- (추진기관) 8개 중앙행정기관, 3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 과기정통부, 고용부, 교육부, 복지부, 산업부, 여가부, 중기부, 특허청

※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기도

- ('24년 실적) 중앙행정기관 등이 제시한 과제별 추진계획 대부분이 정상 추진되었으며, 116개 세부사업 중 108개 사업(94%)은 목표 달성

| 4대 전략              | 100% | 80~100% | 80%미만 | 미정 | 합계  |
|--------------------|------|---------|-------|----|-----|
| 1. 전략적 인력유입성장촉진    | 26   | 1       | -     | -  | 27  |
| 2. 과학기술혁신글로벌 역량 제고 | 35   | 3       | -     | 1  | 39  |
| 3. 경력개발이음 확대       | 29   | 2       | -     | -  | 31  |
| 4. 젠더혁신 체계 구축      | 18   | 1       | -     | -  | 19  |
| 합 계                | 108  | 7       | 0     | 1  | 116 |

※ '24년 시행계획 세부사업 116개 대해 분석

- '25년 시행계획 주요내용(4대 전략, 12대 추진과제)

### ① STEM 분야 여성인재 조기 발굴 및 유입 촉진

- (초등단계 여학생 유입·촉진) 탐구중심 수학·과학 교육콘텐츠 개발, AI 수업모델 개발을 통해 정보교육 활성화, 진로탐색 기회 제공
- (신산업분야 진출) 창의적 문제해결 및 현장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형 활동, 여학생의 지식재산 관심도 제고 등 지원
- (이공계 진로기반 확충) 산학연 재직자의 진로 특강, 대학 등 연구 현장의 전공/직무 체험, 과학기술 직무역량 진단서비스 고도화

## ② 여성과학기술인 지속 활약 기반 확충

- (경력단절 방지) 긴급돌봄바우처 시범사업(30명), W-브릿지펀드 지원 확대(5→10건), 경력복귀 여성의 지속성장을 위한 경력이음 체계 마련
- (경력다변화 및 연구참여) 경력단절 여성의 신산업 취업역량 및 경력다변화를 위한 교육 강화, 여성연구자의 연구과제 참여 제고
- (적극적 조치 강화) 여성과학기술인 채용/재직 목표비율 설정('26~'28), 적극적조치 적용 사업장의 여성 고용 기준 충족을 위한 자율 개선 유도

## ③ 유망기술 분야 여성인재 참여 및 국제협력 강화

- (신산업 강화) ICT, 빅데이터, 첨단바이오 분야 등 신산업 분야 실무역량 교육, 여성과학기술인 신산업 분야 진출 지원 컨설팅 추진
- (국제협력) 국제여성과학기술인 융합학술대회(BIEN\*, '25.8월) 및 APEC Women in STEM 심포지엄\*\* 개최(인천 송도, '25.8월)
- (기술창업) 과학기술 창업 저변 확대를 위한 여성창업경진대회, 멘토링 추진, 여성창업종합지원센터(전국 18개)를 통한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 ④ 포용적 문화 확산 및 사회적 기여 확대

- (DE&I 협력) 포용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UNGC와 연계한 워크숍, 여성과기인 지원 정책에 대한 공감 확산 캠페인(WISE MAN) 추진
- (젠더혁신 실효성 제고) 젠더 다양성을 고려한 젠더혁신 연구체계 마련, 젠더혁신 교육콘텐츠 개발 및 주기적인 교육 실시
- (사회적 역할 제고) 여성과학기술인의 사회적 기여와 영향력을 강조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홍보 강화(She did it 캠페인)

## ⑤ 2023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적극적 조치 결과(안)

### □ 개요

- (목적)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현황 및 정책·사업 시행에 따른 성과 점검
- (내용) '여성과학기술인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 재직·채용·보직 현황, 연구개발 활동, 복지, 근무환경 등 조사
  - ※ (실태조사 대상) 4,981개(이공계대학, 공공연구기관, 100인 이상 민간기업 연구기관)  
(적극적 조치 점검대상) 과기분야 50개 연구기관(정부출연(연) 42개, 공사 부설(연) 8개)

### □ 실태조사 및 적극적 조치 결과

#### ①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 (활용) 여성과학기술인의 재직자 비율 23.1%(61,430명), 신규채용 비율 31.6%, 보직자 비율 12.8%, 승진자 비율 18.8%
  - ※ 인사관련 심의기구 여성 비율 15.0%, 연구과제 관련 심의기구 여성 비율 15.3%
- (인프라)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중 법적 의무제도\*의 운영률 93.1%, 자율적 제도\*\*의 운영률 55.5%
  - \* 휴가제도(출산전후, 태아검진, 유사산, 육아, 배우자출산) 수유시간 보장 등 6개
  - \*\* 휴직(난임, 일반), 수유시설, 대체인력, 유연·원격·재택근무제, 휴게실 등 8개

#### ② 적극적 조치 점검결과

- 채용(결과 19.7% / 목표 24.3%), 재직(결과 17.1% / 목표 20.4%) 목표비율 미달성
  - \* (채용) 여성 비율이 높은 분야 채용 감소, (재직) 출산 등으로 행정직 이동 등으로 미달성

#### ③ 이공계 대학 등의 여학생 비율

- 이공계 여성 입학생 비율 32.2%, 재학생 비율 31.9%(자연 52.5%, 공학 23.7%), 여학생의 졸업 직후 취업률 65.9%(남학생 71.4%)
  - ※ (의·약학계열) 입학생 7.7만명 중 女비율 66.5%, 재학생 25.7만명 중 女비율 67.3%

### □ 향후 계획

- 실태조사 통계 품질 관리 강화, 시사점 도출 및 정책 수립 시 활용